

1989년 이후 이증적 중미관계: 장저민과 클린턴의 인지지도 분석을 중심으로

Empirical Analysis of the Back and Forth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U.S since 1989: focusing on the Jiangzemin and Clinton's cognitive map

정다훈*

CHUNG, Da Hoon

Abstract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and identifying the factor that has led the back and forth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1989. Previous studies on this subject addressed the issue by taking either of two approaches: one with the micro view that interprets the back and forth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the end of the Cold war, on other hand, with the macro view that interprets the fragile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China. However, neither of the approaches explains with sufficiency the question at hand. Hence for the inquiry, this article suggests a fresh view by exploring alternative method of using a cognitive map of each nation's leader, Jiangzemin and Bill Clinton. This article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through the Selected works of Jiangzemin and the speeches of Bill Clinton in 1998 for the first time in the field of Sino-US relationship studies in Korea. With the results of the cognitive map analysis, we can reach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ly, indicators of the forth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 are: i) the recognition by Bill Clinton on the importance of China's economic growth and; ii) the US's cooperation of science technology with China. Second,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results from the discordance of opinions on the matter of human rights and military power. Second, the conflict will inevitably arise on environmental issues around the globe including a global warming. Third, while China has yet to find a legitimate reason to agree upon these issues with the US, the US urges China of its cooperation. Lastly, Both China and the US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alliance with Japan. This implicates that relatively, issues involving Japan take more control in the China-US relationship, than those of Korea Peninsula.

Keywords: Cognitve Map, Sino-U.S. Relationship, Jiangzemin, Clinton

* 북경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박사과정(jennifer264@gmail.com)

北京大學校 國際關係學院 外交系 博士研究生 鄭多訓

I. 서론

중미관계는 냉전시기 전면적 대립관계(1949-1971)와 국교정상화 이후 전면적 협력관계(1972-1989)를 유지해온 것과는 달리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이중구도를 보이고 있다. 1989년 천안문 사건이후 미국은 대 중국 제재를 선언했다. 빌 클린턴(B.Clinton)대통령은 중국이 파키스탄으로 M-11 유도탄 기술을 판매한 것을 구실로 경제제재를 실행했고, 중국 인권상황을 이유로 IOC에 압력을 가해 중국의 2000년 올림픽 개최를 막기도 했지만 1994년에는 돌연 경제제재 취소하고 중국과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취하는 유화자세로 돌아선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5년과 1996년 사이 대만해협 위기로 중미 양국은 다시금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후 1997년과 1998년에는 다시 중-미간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과 전략적 협력관계 선언으로 화해의 무드를 이어갔으나 1999년 또 다시 WTO협상 좌절과 유고 베오그라드 중국 대사관 오폭 사건으로 중국과 미국은 긴장상태에 놓이게 된다. 2001년에는 WTO가입확정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긴장이 완화되었다가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를 하면서 또 다시 중국과 미국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된다. 201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로 미국과 중국은 다시 협력의 구도를 보이지만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1989년 이후 끊임없이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II. 기존 연구 분석

냉전시기부터 현재까지 중미관계 전체를 개괄하는 미국학자 Sutter(2010)는 중미관계에서 중국의 국가 이익 변화에 주목한다. 그는 냉전기 중미관계는 ‘소련’에 대한 인식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반면 1989년 이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로 인해 그 원인을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본다. 특히 1989년 이후 중국과 미국은 공식적으로 무역, 투자, 경제관계 분야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동아시아 안보, 대만, 인권 문제 등에서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본다. 중미관계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중국의 Jiaqingguo(1998) 역시 그의 책 제목 “곤란한 합작(棘手的合作)”처럼 중미관계를 매우 불안정한 협력관계라 본다. Sutter는 안보, 경제, 환경, 대만과 인권 이슈에서 중미간의 차이를, Jiaqingguo는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중미간의 협력과 충돌을 다루고 미디어를 통한 중미간 상호인식을 살펴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두 학자는 중국과 미국간의 불안정한 협력의 원인을 양국의 국익 변화, 이에 따른 정책의 우선순위 변화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89년 이후의 중미관계에 보다 초점을 맞춘 기존연구 역시 '국익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중미관계 전체를 개괄하는 연구의 논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89년 이후로 보여지는 중미 간 협력과 갈등의 이중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는 냉전시기,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어 전면적 협력이 가능했던 중미관계는 소련 해체이후 공동의 전략적 이익이 종식되면서 양국 간에 국익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었다는 미시적 관점의 해석이 대부분이다(2005, 2008, 2009). 1972년 중미 간 국교 정상화의 계기가 소련이라는 대상에 대한 중국과 미국 간의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미시적 관점은 매우 적절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각은 냉전 종식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미국과 일본은 탈 냉전 이후 구 소련의 붕괴라는 공동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 잠시 국익을 둘러싸고 대립을 보였다가 96년 이후 다시 급속하게 강화된 동맹관계를 보이는데 같은 상황에 있던 미국과 중국은 이와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즉, '구 소련의 붕괴'는 곧 공동의 전략적 이익 상실이라는 기존의 미시적 관점에서의 해석으로는 현재까지 반복되는 중미 간 갈등과 협력의 이중구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미관계를 본 미시적 관점의 연구는 1989년 이후 중미간의 협력과 갈등은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2003, 2009). 이 입장에 따르면 탈 냉전 시기 미중관계는 대외정책의 전략적 고려가 우선되기 보다는 미국 국내정치 of 이해관계의 영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90년대 클린턴 정부 및 21세기 초 부시행정부 시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즈음에는 대체로 관계가 악화되었다가 점차 회복하는 일정한 주기적 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중관계는 미국의 대선 경과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미중관계는 미국의 국내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갈등과 협력을 반복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와는 달리 대선과 임기초반에서부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중국과 미국은 갈등관계를 보인다는 미국중심의 미시적 관점분석도 1989년 이후의 이중적 중미관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중국의 입장에서 1990년대 중미관계의 갈등을 분석한 새로운 시도로는 중국의 민족주의와 중미관계간의 상관관계를 찾고자 한 연구이다.(1999) 이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중국 민족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은 공산당 주도의 국가 민족주의이며 이는 애국주의란 이름으로 국가 통합의 이데올로기로 강력하게 작용하여 반미 민족주의와도 결합되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중미관계의 다양한 사례들은 단순히 민족주의 개념 하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 하나를 독립변

수로 중미관계를 보려는 시도 역시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이는 중미 간 갈등과 협력의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미시적 관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연구된 방법은 세계질서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미관계를 설명하는 시도이다.(2002, 2005, 2011) 이 관점은 탈냉전기 이후 중미관계의 갈등과 협력구도를 세계체계의 구조 속에서 중국의 지위의 변화로 설명한다. 이 관점은 기존의 미시적 관점의 해석의 문제를 보완하고 중미 간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를 중국의 부상이 세계 질서에 끼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제시하려는 시도로 중국의 부상이 탈냉전기 세계체계의 힘의 분포에 끼칠 영향과 이에 대응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접근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중미 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개별 사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대만 해협 봉쇄를 둘러싼 클린턴과 부시 간의 서로 다른 대응구도 역시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은 결정적으로 중미 간 대외정책 갈등을 대내정책과의 연동 속에서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중미관계를 설명하는 미시적, 거시적 관점의 설명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미간의 이중구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점의 지도자들인 중국의 장저민(江澤民) 주석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Bill Clinton)의 인지지도 분석을 통해 이 문제에 새롭게 접근하고자한다.

Ⅲ. 대외 정책에서의 인지지도 연구 방법론

본 연구는 현 한국 중미 외교관계 연구에 있어 원자료를 이용한 지도자 인지지도 분석이라는 최초의 실증연구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대외정책 연구에 있어 인지지도를 이용한 사례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인지지도를 통한 외교정책 분석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방국가들 중심으로 있어왔으나 대외정책 연구에서는 George(1969,1979), Holsti(1970,1977)의 연구에 이은 Walker(1998)와 Young(1994)의 Operational Code 분석에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Operational Code 분석은 지도자의 철학적 성향 또는 지도자 개인의 특성을 분석 하는데는 적절한 방법이지만 이 분석으로는 국가 전체의 방향성을 크게 조감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실상 국가정책의 핵심을 찾기 위해 지도자의 연설문이나 정부문건을 내용분석하는 방식은 누차 있어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연설문이 정책결정자의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방어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인지지도라는 분석틀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연구 방법론이 연설문이나 언어에

서 레토릭으로 인지되는 형용사 부분을 제외하고 동사와 동사로 이어진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인지지도는 연설문 속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지도자의 주요 정책 변수 이외의 부분까지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외교학적 수사가 강한 대외정책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다. 또한 한 국가의 지도자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한 부분에 대한 단편적 정책적 접근이 아니라 그 국가가 가야할 전체의 방향을 그리게 됨으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 대외정책 이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 국가의 대응행태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지에 대한 조망을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도자의 인지지도 분석 기법은 외교 관련 문건의 내용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외정책 분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은 한국과 중국학계에서 대외정책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장저민과 클린턴의 인지지도를 통해 1998년 두 국가 간의 협력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것이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중미관계의 갈등과 협력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찾아보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 주로 강조하려고 하는 주요 연구시점은 1989년부터 악화된 중미관계가 다시 협력으로 변화하는 1998년이다. 따라서, 분석 자료는 기본적으로 중국 지도자인 장저민의 집권 시기 전체(1989-2002)로 한정하되, 비교분석을 위해 1998년 클린턴의 연설자료도 포함하기로 한다.

IV. 1998년 중국과 미국의 위기 인식

본 논문의 주 연구시점인 1990년대 중국의 가장 큰 정책적 목표는 경제발전으로 1998년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을 대대적으로 단행한다. 또한 중국은 1997년 있었던 아시아의 금융 위기에서 적극적으로 이 위기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중심의 단극화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의 변화의 분수령을 만든다. 반면, 미국은 1990년대에 경제적으로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데 98년 클린턴은 특검 검사 케네스 스타의 집요한 추적으로 모니카 르윈스키 사건이 밝혀져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또한 1997년과 1998년에 걸친 동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경계하는 내부의 압력을 함께 받는 상황이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정치적 지지와 경제적 협력은 세계체제 속에서 미국의 위치를 공고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미국의 경제적 협력이 중국의 힘을 키워 자국안보의 위협요소를 만들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중국의 입장에

서도 1998년 대대적으로 단행한 국영기업 개혁과 경제성장 발전전략은 중국 국력성장의 기초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다극화 전략의 추진 기회지만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수록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 저항이 어려워지는 딜레마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중국 국내경제의 성장을 위한 중미간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는 필수적인데 이것은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추구하는 다극화 정책 추진에 제약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내재적 딜레마 상황으로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설문에 언급하지 않는다. 김재철은 중미관계를 설명하는 글에서 중국의 다극화 추진과 경제성장은 딜레마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실주의자들이 다극적 세계질서를 불안정하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중국의 지도자들은 다극화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극화 체제가 미국의 “패권적 행위”에 견제작용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한다. 또한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면 이러한 다극화가 더욱 촉진되어 안정된 세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로 1998년 장저민의 연설문을 보면 장저민은 간접적으로 위와 같은 내재적 딜레마 상황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장저민 주석은 1998년 12월 7일 북경에서 거행된 국무원 중앙경제공작회의 연설에서 1998년 당시 상황을 세계 다극화와 경제 전지구화, 과학기술의 빠른 진보와 지식 경제의 출현으로 규정하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제 전지구화의 과정을 따라가야 하며 중국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유리한 국제 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1998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998년 우리는 두 개의 도전에 직면했다. 하나는 아시아의 금융위기의 만연과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고 세계경제가 이에 큰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심각한 홍수재해의 발생으로 국내 재해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실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 경제발전에 악재로 이어져 현재 중국 경제는 복잡한 국면에 처해있다.”

장저민의 이러한 인식은 1998년 중국이 대대적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실시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당시 주석이었던 장저민은 1998년 자국의 경제 위기 상황이 대내적 차원에서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연결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그해 국유기업개혁을 주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한다. 그러나 장저민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제협력의 중요성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의 경제정책 인식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1998년 11월 18일 APEC 지도자 비공식 회의에서 한 연

설문이다. 이 연설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가 개별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과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 것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아래는 1998년 11월 18일 APEC 지도자 비공식 회의에서 발표한 장저민의 연설문의 일부이다.

“과학기술 산업의 협력과 발전은 기업의 혁신능력을 증가시킨다. 기업은 경제발전의 주체로, 기업은 인력자원개발과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관리 매커니즘의 설립을 통해서만 기업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산업의 협력과 기업혁신 능력의 향상은 APEC회원국의 경제에 활력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금융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금융시장의 일체화가 가져오는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다. (중략) APEC이 이 방면으로 개별 회원국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장저민은 경제성장을 위해 개별 국가의 과학기술 산업발전과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내의 관리 매커니즘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아시아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일체화를 꼽는다. 여기서 장저민이 말하는 “국제금융시장의 일체화”란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국내와 국외 금융시장간의 점점 더 밀접해진 관계, 협조를 말하며 국내와 국외 시장이 서로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경제를 촉진시켜 점차 하나의 통일된 금융시장의 형태와 추세를 향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개념은 다음 세 가지를 함의를 포함한다. 첫째, 각국 개별 은행 혹은 금융기관은 다국적 기업이 형성한 각국 금융시장과 밀접한 연결망을 갖는다는 점, 둘째, 이렇게 형성된 각국 금융시장간의 연계사슬이 각국 금융시장간의 금융교역량의 증가를 엄청나게 촉진시키는 점, 셋째, 위의 두 가지 이유로 각국 금융시장의 이윤 결정 메커니즘이 상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동일한 금융수단으로 서로 다른 금융시장의 가격을 일치하게 만들게 된다. 국제금융시장의 일체화는 외국자본의 투입으로 인해 국내 투자의 다원화를 만들고 금융시장의 성장을 촉진하여 더욱더 작은 자본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자본의 자유로운 유동은 국내금융자산 가격의 과도한 파동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각국 금융시장간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국제금융체계의 위협을 상승시키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장저민은 그의 연설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일체화를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이 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일체화 현상을 가속화시킨 주체는 다국적기업이며, 이 다국적 기업은 거의 대부분 미국자본이 차지하고

변수는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변수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둘째, 시스템 사고의 틀인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도자는 어떤 변수를 통제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어떤 변수를 통제 불능의 외부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지도자가 통제가능하다고 보는 변수는 그를 위한 정책 개발에 많은 부분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통제불능 변수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도자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셋째, 피드백 루프의 확인이다. 이것은 지도자가 시스템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지도자가 두 변수간의 관계를 양의 피드백 루프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직접적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양의 피드백 루프는 선순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지도자가 음의 피드백 루프로 두 변수간의 관계를 상정할 경우 이 두 변수들은 직접적인 정책적 영향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균형의 상태를 이루게 되므로 지도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넷째, 각 변수 전체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군사 등의 주요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 간의 연결고리를 지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설문의 내용분석만으로는 찾아지지 않지만 인지지도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으로 이를 통해 정치와 경제간, 외교와 경제 간의 중요하게 개입될 수단 변수를 찾아낼 수 있다. 다섯째, 지도자가 목적 변수로 생각하는 주된 변수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관계를 찾아보는 것이다. 정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적 목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책 우선순위 결정의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역시 연설문의 단순 내용분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으로 인지지도 분석이 정책분석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1. 장저민 인지지도의 목적 변수와 수단 변수 인식

위의 인지지도를 통해 본 장저민의 재임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보이는 것은 단연 국내의 경제성장과 국제평화이다. 특히 경제발전은 거의 모든 변수들의 목적변수로 귀결되는 만큼 절대적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국제평화 역시 그 자체로 목적 변수이자 경제발전과 상호 피드백관계를 가지는 중요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중국경제발전이나 국제평화보다는 정책의 목표치는 낮지만 수단과 동시에 목적변수로도 보여지는 몇 개의 변수들은 국제기술 교류, 아태 지역 경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당의 안정 등이다. 국제기술 교류의 경우, 수단과 동시에 목적변수로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타국과의 교류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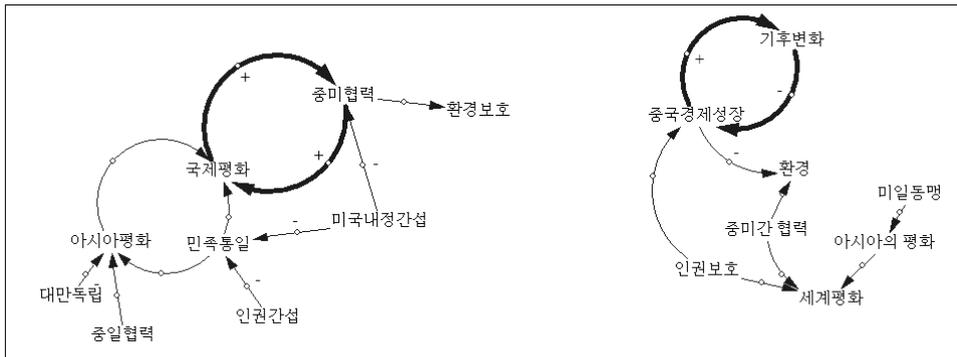
게 부각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장저민은 국제기술교류를 하나의 목표변수이자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변수, 즉 중요한 매개변수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미국과의 협력의 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과의 협력에서 과학기술 교류 부분은 두 나라간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수임을 클린턴의 인지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즉, 장저민은 재임시기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을 대외적으로는 국제평화를 중요한 정책가치로 생각하고 있으며 장저민은 이들 두 변수는 서로 양의 피드백루프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보고 있다. 중국의 국내적 경제성장이 국제평화를 가지고 오고, 대외적인 평화환경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다. 장저민이 국제평화와 경제발전을 양의 피드백 구조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중국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 장저민 인지지도의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인식

장저민 인지지도를 보면 그가 통제가능한 내생 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변수가 보인다. 국유기업개혁, 국제기술교류, 국내 과학기술, 국제경제교류, 개혁개방 노선, 중국특색 사회주의, 인권, 대외개방, 당의 안정, 법치제도 등은 모두 장저민이 정책목표를 위한 통제 가능 변수로 인식하는 것들이다. 장저민은 인권과 법치제도, 당의 안정과 중국특색사회주의까지도 모두 통제 가능한 변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과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미국 지도자의 인식과 매우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장저민이 통제 불능의 변수로 보고 있는 것은 군국주의, 대만독립, 군비, 국사동맹, 패권주의, 인구증가, 다극화, 지적재산권 제도화, 외부 금융감독, 국민의식 계몽이다. 여기서 주목할 변수는 다극화와 지적재산권의 제도화 부분이다. 장저민은 이 두 가지 변수를 자신의 임기 내에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장저민 자신이 내재적으로 다극화와 중국의 국내성장간의 딜레마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국의 경제성장을 우선순위로 두고 미국과의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협력을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미국과 같은 서방국가들과의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하겠다.

3. 장저민 인지지도의 피드백루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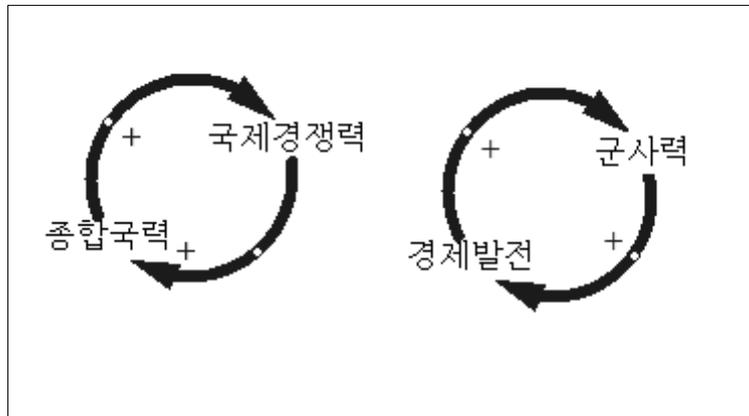
장저민의 인지지도 속에서 보이는 피드백 루프는 모두 양의 피드백 구조로 국제평화와 중미협력, 군사력과 현대화, 군사력과 경제발전간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장저민에게 대만과의 통일, 소수민족의 통합은 국제평화와 아시아 평화를 위한 수단변수이다. 따라서, 대만과의 통일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일관적인 정책기조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에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중미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주요 피드백 루프 구조와 변수간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장저민 클린턴의 피드백루프 인식

장저민은 국제평화와 중미간의 협력이 서로 양의 피드백루프를 지닌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그는 지속적으로 중미간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평화적인 환경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저민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미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중국 민족의 통합, 타국의 내정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클린턴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기후변화와의 관계의 음의 피드백루프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기후변화를 악화시키고 기후가 악화되면 중국의 경제성장도 둔화된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장저민에 비해 세계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음의 피드백 루프를 보이는 만큼 크게 중국을 압박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클린턴과 장저민의 인지지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다. 클린턴은 인간의 권리, 개인권리의 국가보호 등과 같은 변수는 외생변수로 직접적인 정책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인식한다. 그 자체로 절대성을 갖는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장저민은 법과 인권을 통제 가능한 변수로 인식한다. 그는 인권의 발전과 국제평화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내정간섭을 배제하고 각국의 독립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평화의 수단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클린턴은 전체 인지도에서 아시아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이 아시아의 평화의 수단이 되고 아시아의 평화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장저민은 특이하게도 아태지역의 경제발전과 아시아의 평화와의 상관관계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장저민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미간의 협력이 아시아의 평화를 만들 것이라고 인식하며 클린턴이 국가의 인권보호와 주변국의 경제적 안정을 국제평화의 수단변수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장저민은 국제평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패권주의, 군사동맹, 내정간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장저민의 인지도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특징은 종합국력과 국제경쟁력, 국내의 경제성장과 군사력과의 피드백 루프이다.



[그림 3] 장저민의 피드백루프 인식

장저민은 강한 군대를 보유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가져오고 이것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본다. 또한 종합국력을 기르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것은 중국의 국내성장을 촉진시키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강해진 중국의 성장은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장저민이 말하는 ‘종합국력’이란 현재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력 이 세 가지가 모두 합쳐진 국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장저민이 사용할 당시의 ‘종합국력’은 그가 그의 연설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문화력을 제외한 경제력과 군사력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장저민의 생각하는 국력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장저민 문선 1,2,3권 전체에서 장저민이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력, 종합국력이란 단어를 언급한 횟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장저민 문선 중 단어 빈도표

	군사력 (군사, 국방)	경제력 (경제)	문화력 (문화)	종합국력 (종합국력)
제1권 (1980-1997)	58	198	23	0
제2권 (1997-2000)	159	385	84	13
제3권 (2000-2004)	26	432	98	16
총합	243	1015	20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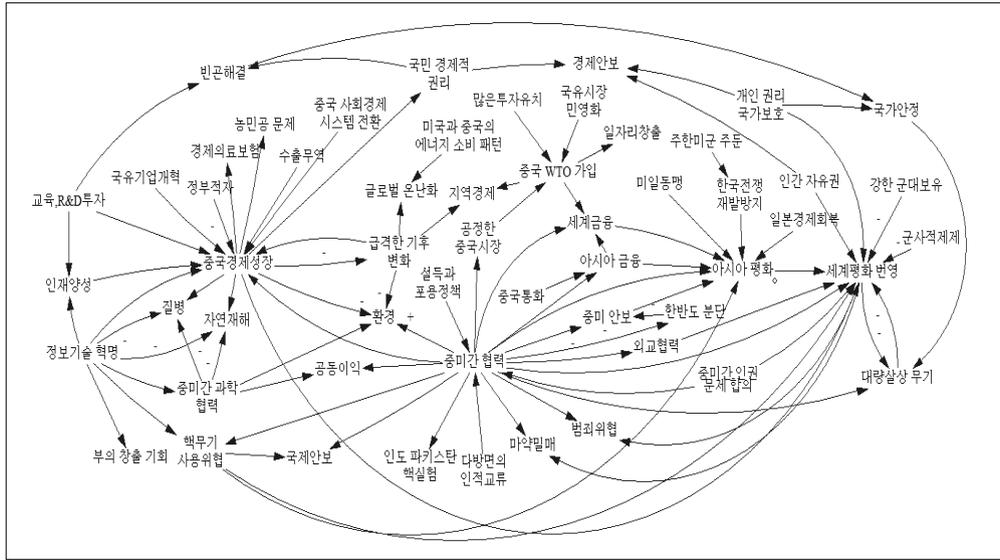
장저민이 그의 연설에서 언급한 빈도수로만 조사한 결과를 봤을 때 그가 국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문화력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의 스마트파워와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는 중국어 “종합국력”은 장저민 집권시기인 1997년에 가장 먼저 쓰여졌지만 장저민이 이 용어를 쓸 때는 문화력을 포함하지 않은 개념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2000년 이후부터 장저민 연설 속에서 군사력보다 문화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저민은 2000년 이후 연설에서 문화력을 경제력에 있어서 군사력보다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2000년 장저민은 유엔 밀레니엄 연설을 통해 기존에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실력을 길러 때를 기다린다)의 자세에서 벗어나 ‘유소작위’(책임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줄 것)임을 강조하며 WTO가입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무엇보다 미국의 힘을 강하게 필요로 하는데 바로 이러한 시기에 1990년대와는 달리 장저민의 연설 속에서 군사나 국방이란 단어보다 문화라는 단어가 4배나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2001년 이후의 중국은 테러리즘 근절이라는 미국의 기조에 동의하며 비교적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이 말하는 ‘문화력’은 후진타오가 집권하는 2002년 이후부터는 종합국력과 같은 비중으로 중시되면서 국가의 기조로 더욱 더 많이 쓰여지게 된다. 위의 표에서 중시할 것은 본 논문이 주요 초점을 잡고 있는 시점의 연설문 모음인 장저민 문선2권에서 보여지는 ‘군사력’이란 단어의 비중이다. 중미간의 이중구도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 해당되는 시기 장저민은 다른 때보다도 국방력과 군사력을 매우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인지지도를 통해 보이듯이 군사력과 중국의 경제발전은 서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등소평시기 선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노선에서 선회하여 군사력의 강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장저민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겠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군사동맹과 군비증강이 세계평화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부의 군사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미국과의 갈등을 내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4. 각 분야 간 연결 고리

장저민 인지지도의 여러 가지 수단 변수를 경제, 사회, 외교, 군사, 정치 영역으로 묶어서 두 가지 분야 간 변수를 살펴보면 장저민은 경제와 사회 간의 주요한 연결 변수로 국유 기업개혁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 국내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해 국유기업을 단행하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 분야와 경제 간의 연결변수는 현대화와 공산당 중심의 통제권 확보이다. 장저민은 국방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 군대 인원을 축소하고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 두 가지를 모두 공산당 중심의 통제 하에서 당의 안정도 직결되는 중요 변수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와 경제 분야를 연결하는 주요연결 변수는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으로 클린턴과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권의 발전이란 변수가 외교, 정치, 경제, 국방 그 어떤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클린턴은 인권의 발전이 경제, 정치, 외교 영역에 있어 모두 중요한 연결고리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장저민은 외교와 사회문제, 혹은 대외정책 그 자체 노선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민족의 통합과 통일을 주요 연결변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저민은 주요한 정책 목표가 국내의 경제발전으로 확실하게 보여지는 걸로 보아 정책목표 간의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대외정책과 대내정책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우선순위가 중국 국내의 경제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맞춰질 것임을 알 수 있다.

VI. 클린턴의 인지지도 분석

1998년 클린턴의 인지지도를 보면 클린턴이 장저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의 경제성장이란 가치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클린턴은 중국경제성장과 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주요 목적변수로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과 중미간 과학협력은 장저민의 주요관심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클린턴은 중미간의 과학협력을 통해 인류의 질병과 자연재해와 같은 전 인류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장저민은 과학기술교류와 협력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아태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두 지도자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방면의 중미간 협력과 중미간의 과학기술교류로 전 세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클린턴의 인식과는 달리 장저민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원동력으로



[그림 4] 클린턴의 인지지도(1998)

중미간 과학기술 협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장저민은 클린턴처럼 글로벌 환경위기와 지구 온난화 현상 등에 대해서도 언급 빈도수가 높지 않는데 이것은 중미간 과학협력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중미간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과학기술협력을 수단으로 하여 각자 이루려고 하는 목표변수는 두 지도자간에 차이가 있으며 무엇보다 전 지구의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중미간의 지속적인 마찰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클린턴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제안보, 세계평화, 아시아의 평화를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중시하는 두 지도자간의 인식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수단에 있어서는 두 지도자간의 인식의 차이가 보인다. 클린턴은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국가에서 보호해야하며 그것이 국제평화에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한다. 또한 세계평화의 전제인 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과 경제 안정에서 찾고 있는 반면, 장저민은 아시아의 평화와 아시아의 경제 및 금융 안정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인식하지 않는다. 클린턴은 강한 군대와 대외 문제에 대한 군사적 제제가 국제평화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장저민은 강한군대양성이 중국의 국내 경제발전에 전제가 됨을 강조하고 함으로써 두 나라간의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았다고 하겠다. 개인의 권리 주장이전에 국가의 주권에 대한 존중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장저민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클린턴과 갈등의 소지가 남기고 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장저민과 클린턴이 모두 강조하는 것은 일본의 역할이지만 중국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는 정책결정의 주요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은 한반도의 분단이

중미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 중미간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지켜야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회복과 미일동맹을 아시아 평화에 원인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장저민은 아시아 평화는 대만과 중국이 통일되어 중국내 민족통합과 통일을 이루고 중일 양국이 협력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만에 무기 판매를 강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시 충돌과 갈등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아시아 평화를 위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변수를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한반도의 문제는 중미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는 클린턴과 달리 장저민은 이에 대한 위기 의식보다 대만과의 분쟁을 더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중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이 부분은 왜 6자회담이 장저민 시기가 아닌 후진타오 시기 2003년에 들어와서야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중국이 6자회담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2003년 8월 첫 번째 6자회담부터 2007년 9월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총 여섯 차례의 회담이다. 그러나 이 여섯 번 모두는 장저민 시기가 아닌 후진타오 정권 때의 일이다. 이것은 장저민의 인지지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저민에게 한반도 문제는 아시아의 평화나 중국을 위한 주요 수단 변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만연했던 1990년대의 장저민과 클린턴 모두에게 일본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금융위기 속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일본은 협력의 대상이자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기 전개 시점이었던 1997년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시발점이다. 7월에 시작된 태국 발 아시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한국 등으로 이어진 당시의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지역의 수출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를 가지고 왔고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률도 떨어뜨리는 상황으로 번져나간다. 이것은 94년도의 멕시코 발 통화위기의 영향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비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 전체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을 시작하고 ASEAN+1(일본)을 제안한다. 사실 ASEAN+3 회의는 1997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창설 30주년 기념식에 한중일이 초청되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원래 이 회의는 1997년 1월, 당시 하시모토 총리가 동남아시아 순방 중에 싱가포르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일본과 ASEAN수뇌에 의한 정기적인 수뇌회담을 각국에 제안한 것이 발단이었다. 하시모토의 제안에 대해 당시 ASEAN은 일본과만 수뇌회담을 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중국과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 일본 전문가의 주장이다¹⁾. 그 결과로 그해 12월에 ASEAN+3이 실현되었지만 원래 일본의

의도는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아세안의 협력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이미 동아시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방향모색을 하고 있었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데 그 전에 일본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암묵적인 합의가 가능했음을 클린턴과 장저민의 인지지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하겠다.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겪으며 일본은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이 일본의 역할과 아시아 평화와의 상관관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일본의 역할론은 외부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표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반면, 남북문제와 관련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중요도 인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은 장저민 시기 이후에 가능했고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 한반도 문제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도 비교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줄게 됨에 따라 북한과 한국과의 협력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단절한 적은 없었지만, 자국의 일차적인 과제인 경제개혁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과 다소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다.²⁾ 북중 무역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2001년 이후로 중국의 대북투자도 2000년 이후부터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은 북중간의 경제협력이 약화된 틈과 한반도의 안정이 중미간의 안보와 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클린턴, 즉 미국정부의 기초 속에서 가능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Ⅶ. 결론

본 논문은 기존의 중미관계를 설명하는 미시적, 거시적 관점의 설명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미간의 이중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점인 1989년부터 2001년 9.11 테러 전에 해당되는 시기의 지도자들인 중국의 장저민 주석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언어 분석을 통해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두 지도자의 인지지도를 통해 양국 간의 갈등과 협력의 요소를 찾아내고자 했다. 나아가 정책언어 분석으로 만들어진 인지지도를 통해 98년 협력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것이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중미관계의 갈등과 협력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분석 결과, 1998년 중미 관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클린

1) 김필동, “동아시아와 일본”, 울산매일, 2012,8,6. 19면 관련기사 참조

2) 유승경, “북한, 중국 의존 심해지고 있다.”, LG Business Insight, 2010, 9.09 p.33

턴의 중국경제성장이라는 인식과 중미간 과학협력의 강조, 외부 세계에 대한 군사제재에 반대하는 클린턴의 정책기조임을 알 수 있었다. 장저민은 재임시기 전체를 통틀어 자국의 경제성장과 국제기술교류를 매우 중요한 목적변수로 인식하고 있는데 클린턴은 바로 이러한 장저민의 정책의 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클린턴은 국유시장의 민영화가 중국 WTO가입의 선결조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의 장저민은 국유기업개혁을 통해 폭넓은 국내 경제개혁을 실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2001년 미국의 반대없이 WTO에 가입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중미간 갈등의 요소는 여전히 두 지도자간의 인지지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먼저, 인권과 아시아 지역 평화에 대한 수단변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장저민은 인권 발전은 최저생활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성장이 먼저 주어진 다음의 일이며 국제평화와 중미간 협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각 나라의 독립주권이 존중되어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중국의 민족통일과 통합은 선결되어야할 조건이며 이를 위한 어떤 외부 내정간섭에도 일관성 있게 반대를 견지해 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시아와 세계의 금융안정, 미일 동맹, 일본 경제회복 등이 중요하며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의 자유권이 먼저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함으로써 중국과의 갈등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또한 양국 간 과학협력이라는 동일한 두 지도자의 수단변수도 그것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 인류의 문제인 환경문제도 중미간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는 클린턴의 인식과 달리 장저민은 국제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중국 내의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인식구조를 보여 미래에 양국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장저민 시기 2001년 WTO가입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핵확산 방지조약 가입, 한반도 6자회담에서 주도적 역할담당, UN 평화유지군을 증강 및 해외개발원조자금 확대 등은 중국이 미국 중심의 국제체계로 편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기후협약에서 책임 대국론의 모습과 개발도상국의 지위가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시리아 문제에 대한 UN의결에 있어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등 여전히 미국 중심의 서방세력과의 대척점에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장저민 시기 전 인류의 환경문제와 인권문제, 내정간섭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장저민 이후 시기까지도 중미간의 갈등의 주요원인요소로 여전히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클린턴과 부시의 중국 인식 비교, 덩샤오핑, 장저민, 후진타오에 이르는 세 지도자간의 인지지도 비교 등 보다 다양한 비교분석을 통해 대외정책에서의 인지지도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1차 자료

《江澤明文選》第一卷、第二卷、第三卷, 人民出版社出版, 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2006
年8月10日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Statements of Administration Policy

<http://www.presidency.ucsb.edu/saps.php>

김도훈 · 문태훈 · 김동환. (1999). 『시스템다이내믹스』. 서울: 대영문화사.

김동환. (2004). 『시스템사고: 시스템으로 생각하기』. 서울: 선학사.

김동환 · 안지영, (2009). “녹색성장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지도 분석”. 『한국시스템다이
내믹스연구』. 제10권 제4호.

김재철. (2002), “패권, 다극화 그리고 중미관계”. 『한국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김호준. (2003). “21세기 미·중 관계의 결정요인”. 『대한정치학회보』 10집 3호: 315-227

김홍규. (2009). “미중관계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분석보고서

소영진, 이영철, 윤건수 외. (2009). 『딜레마와 제도의 설계』. 나남

신중호. (2005).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중미관계”. 『중소연구』. 통권 106호

이동률. (2001). “중국민족주의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미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
총』 제41집 3호.

주형민. (2011). “미중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협력자 혹은 경쟁자”. 『평화연구』 봄호.

Axelrod. R. (1976). Structure of Decision: The Cognitive Maps of Political Eli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Eden, C., (1994). “Cognitive mapping and problem structuring for systems model building”, System
Dynamics Review, Vol.10, No.2: 257-275.

Coleman, J. S. (199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95-120.

Robert G. Sutter., (2010). “U.S.-Chinese Relations: Perilous Past, Pragmatic Present”,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Rowemary Foot and Andrew Walter. (2011). “China, the United States, and Global Order”.
Cambridge Press.

George, A.(1969). “The Operational Code: A Neglected Approach to the Study of Political Leaders
and Decision Making”.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3:190-222.

- George, A.(1979). “The Causal Nexus Between Cognitive Beliefs and Decision-making Behavior: The Operational Code Belief System”. *Westview Press*. 95-124.
- Holsti, O.(1970). “The Operational Code” Approach to the Study of Political Leaders:John Fster Dulles' Philosophical and Instrumental Belief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23-157
- Holsti,O.(1977). “The Operational Code as an Approach to the Analysis of Belief Systems”. Final Report to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Grant No. SOC 75-15368.
- Walker, Schafer, Young.(1998). “Systematic Procedures for Operational Code Analysis: Measuring and Modeling Jimmy Carter's Operational Cod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2, 175-190.
- Stephan G Walker, Mark Schafer, Michael Young.(1999).Presidential operational codes and foreign policy conflicts in the post-cold war world;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Beverly Hills;Oct; Vol.43. Iss. 5: 610.
- JiaQingguo. (2005). “China’s New Leadership and Strateg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trategic Insights*. Vol.IV. Issue 9. September
- 焦世新 者 (2009) “利益的權衡：美國在中國加入國際機制中的作用”. 世界知識出版社
- 劉明 者 (2005) “博弈：冷戰後的美國與中國”. 中國傳媒大學出版社
- 賈慶國 者 (1998) “棘手的合作：中美關係的現狀與前瞻”. 文化出版社
- 陶文釗 者 (2004) “布什當政以來的中美關係”, 同濟大學社會科學報, 第15卷第二期。
- 楊浩勉 者 (2005) “布什連任和中美關係的走向”, 國際觀察, 第一期
- 王棟 者 (2001) “超越國家利益：探尋對20世紀90年代中美關係的知覺性解釋”, 美國研究, 第三期
- 閻學通 者 (2010) “對中美關係不穩定的分析”, 世界政治, 第12期